

“대학원 진학 후배들에게 도움되길”

전북대 입사라 조교, 학과 40주년 기념 대학 발전기금 1000만원 기탁

전북대학교 입사라 조교(사회대 심리학과)가 학과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에 써달라며 1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발전지원재단은 5월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김동원 총장과 학내 주요 보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식을 갖고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입사라 조교가 발전기금을 기탁한 것은 올해가 심리학과 창립 4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다. 특히 심리학과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학부에 비해 장학금 제도가 적은 대학원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탁했다.

입사라 조교는 적지 않은 기금 마련을 위해 조교를 시작했던 2012년부터 급여의 일부를 따로 모았고, 학과 창립 40주년에 맞춰 그간 모인 기금을 후배들을 위해 내놓기로 해 잔잔한 감동까지 안겨주고 있다.

입사라 조교는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면서 늘 학부생에 비해 장학금이 부족한 대학원생들이 안타까웠다”며,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부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층의 기부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 입사라 조교(사회대 심리학과)가 장학사업에 써달라며 1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이에 김동원 총장은 “후배들을 위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을 담은 기금이기에 감동이 더한 것 같다”며, “대학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리고, 이 기금이 심리학과 학생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장은성 기자

김계시 만경읍장, 현장행정 추진중 부상입은 농가 긴급 일손돕기

김계시 만경읍사무소(읍장 최병인)에서는 22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벼 못자리용 상토작업을 앞두고 팔 부상을 입은 서모씨(만경읍 화포리)의 긴급 일손돕기 추진에 나섰다.

최병인 만경읍장은 현장행정 출장 중에 농촌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일손도 부족한데 영농준비를 하는 중에 부상까지 입어 인력부족으로 애타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만경읍사무소 직원 10여명과 함께 긴급히 일손돕기를 추진하게 되었다.

농가주 서모씨는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일손이 부족하여 난감하였는데 바쁜 행정업무에도 시간을 내어 준 공무원들이 있어 큰 힘이 되었으며 작기에 모내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최병인 만경읍장은 “영농 일을 몸소 체험하며 맘의 정직함이 종년농사로 이어지길 바라며, 필요한 농가에 공무원들의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며 영농기 현장행정 추진으로 농업인과 소통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락도네 기자



남원시 산동면, 경로당에 달콤한 사랑의 딸기잼 전달

남원시 산동면(면장 장진숙)은 지난 20일과 21일(2일간) 면사무소에서 달콤한 사랑의 딸기잼 나눔 행사를 갖고 맛있는 빵과 달콤한 딸기잼 140리터(환가액 140만원) 각 경로당(20개소)에 배부해 주목받고 있다.

이날 행사는 산동면 발전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회의원, 시 농업기술센터가 지원해 추진되었으며 힘든 농번기철을 맞이하여 힘든 경로당에 든든한 간식이 지원되었다.

특히, 딸기 농가에 일손을 지원해 수확과 손질에 주민들의 직접 참여했으며, 세척 및 딸기잼 가공은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으로 정성과 사랑이 가미된 딸기잼이 되었다. 장진숙 산동면장은 “이번 지원이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의 좋은 간식이 되어 활기찬 노후생활과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삼동회 무주종합복지관, 지역 장애인/노인 나들이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종합복지관(관장 이영재)에서는 22일 지역 장애인/노인 나들이를 전라남도 곡성군 삼진강기차마을로 다녀왔다.

지역 장애인/노인의 문화 여가·여행의 욕구를 충족시켜 사회적·심리적·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지역 장애인 20명, 노인 20명이 함께 어울리는 나들이가 진행되었다. 한 이용자는 “증기기관차를 타고 추억을 팔며 떠난 삼진강기차마을에서는 1004종의 활짝 핀 장미꽃을 볼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했다.

무주종합복지관 이영재 관장은 “이번 나들이를 통해 무주군 지역의 장애인, 노인이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사회통합 하고자 하였으며, 이용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제7회 전북요트협회장 취임

권익현 부안군수가 제7회 전북요트협회장에 취임했다.

권익현 회장은 지난 21일 전주 호텔르윈에서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과 서정일 전북도체육회 상임고문,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장, 전북체육회 임원 및 각 경기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전북요트협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권익현 회장은 지난해 9월 취임했지만 그동안 별도의 취임식은 갖지 않았으며 최근 전북요트협회 정기총회에서 취임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수용했다. 이날 취임식은 개식선언과 경과보고, 약력소개, 취임사, 축사, 협회장기 인수인계, 폐식선언 등으로 진행됐다. /부안=김석진 기자



농협 무주지부, 복지관에 돼지고기 전달 및 급식봉사

5월 가정의달을 맞아 농협무주지부(지부장 송혁)에서는 22일에 무주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돼지고기 50kg을 전달하고 어르신 300여명을 대상으로 점심 급식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송혁 지부장은 “돼지고기 맛있게 드시고 모든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5월 가정의달을 보내시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청 야구단, 도민체전 우승 인센티브 빛나는 오케스트라에 기부

2019년 전북도 도민체전에서 군부 우승을 차지한 장수군야구단(연합회장 김천수)이 우수성적 인센티브로 받은 상금 1백만원을 장수 빛나는 오케스트라에 기부해 화제다.

지난 2007년 창단한 장수군야구단은 장수군청 소속직원 및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전국공무원야구대회, 전라북도 도민체전, 동호인리그 왕중왕전 등 주요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여 장수군을 알리는 데 앞장서 왔으며 지난 5월 고창에서 치러진 2019년 도민체전에서 군부 우승을 차지하는 등 전통의 강호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1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950/92 전주시 영신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보성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888-6874	남원지사 652-3896	고창지사 563-699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842-2725
서신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요지지사 010-9845-9355	팔백지사 253-6944	남원지사 652-3896	정읍지사 538-3387
	군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8157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92	무주지사 010-2300-4253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